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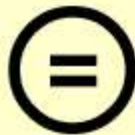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생성이 지시표현 선택에 미치는 영향
-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고 명 진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생성이 지시표현 선택에 미치는 영향
-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고 명 진

고명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12월 14일



주 심 문학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문학박사 박 순 혁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은 일 (인)

<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일반적 위계	3
2.2 인칭 위계	5
2.3 개별성 위계	8
III. 언어 자료 및 연구 방법	11
3.1 언어 자료	11
3.1.1 영한 병렬언어자료	11
3.1.2 한영 병렬언어자료	12
3.2 연구 방법	13
3.2.1 대명사	13
3.2.2 보통명사	17
3.2.3 고유명사	19
3.2.4 생략	19
IV. 지시 표현의 유생성 부호화.....	22
4.1 개별성 위계.....	22
4.1.1 1인칭.....	23

4.1.2 2인칭.....	28
4.1.3 3인칭.....	31
4.2. 인칭 위계.....	39
 V. 결론	43



Animacy Scale and the Choice of Referential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Ko, Myoung-ji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how referential expressions is differently coded in English and Korean in terms of animacy scale. In this paper, referential expressions mean pronouns, names, common nouns and zero anaphora. For this purpose, The English and Korean parallel corpuses have been analysed on the basis of individuation scale and hierarchy of persons. First, in matter of individuation scale the frequency of pronouns, names, common nouns, ellipses used is investigated in two languages. Second, in light of hierarchy of persons the prevalence of first person, second person and third person is explored in them.

The result of the thesis revealed significant contrasts between English and Korean. First, English uses pronouns predominantly whereas ellipses with low level of animacy is used in Korean. Second, English is observed more frequent use of first and second pronoun than Korean by replacing another pronoun with low level. In conclusion, English tends to encode animacy strongly but Korean tends to suppress animacy.

I. 서론

유생성(animacy)이란 유생과 무생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영역으로 사람은 물론 동물, 무생물의 의미까지 포괄한다. 유생성은 생명 그 자체의 의미 외에도 운동(locomotion), 유정성(sentiency)과 같은 인지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Comrie(1989)는 유생성은 하나의 선으로 단순히 정리될 수 없고 인간의 사고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언어에서 유생성은 유생과 무생,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pm$ alive]로 나눌 수 있는 의미자질이 아닌 다소 복잡한 개념이다.

유생성은 언어에 따라 같은 개념이 각각 우세한 자질에 따라 구조적 화용적으로 다양하게 보이므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통일된 개념(unifying theme)으로 여겨져야 한다(Comrie 1989: 9장). 그러나 유생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언어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Comrie 1989: 185). 따라서 유생성은 담화상이나 인지적 원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Lakoff(1987)는 유생성의 이러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언어 형태의 기본구조 내에서 유생성의 인지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유생성이라는 인지적 개념이 인간 언어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지시 표현(reference)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시표현은 인간의 사고 개념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근거가 된다(Yamamoto 1999: 2). Lyons(1997)는 지시 표현이 유생성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중의 하나이고 인간의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시 표현은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지칭어로서 대명사(personal pronoun), 고유명사(human proper noun), 보통명사(human common noun phrase)로 나타난 언어적 표현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시 표현들이 담화·인지적인 이유로 생략¹⁾된 현상도 유생성의 관점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언어의 바탕이 되는 문화적인 요소와 통사적, 의미적, 음성학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이러한 지시적 표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먼저 유생성의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유생성의 하위개념을 구성하면서 상호 영향을 끼치는 매개요소에 대해 알아 본 뒤, 이러한 매개요소들이 유생성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셋째,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비교를 위해서 문어체로 제한하여 병렬언어자료(parallel corpus)를 비교·분석하여 조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한 유생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유생성의 부호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할 영어와 한국어어의 언어 자료와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언어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생성이 영어와 한국어에서 지시 표현으로 어떻게 부호화 되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1) 생략도 공지시(coreference)를 나타내는 수단이다(cf. Hinds 1986: 106-07).

II. 이론적 배경

유생성이란 생명을 가진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유생성이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유생성을 나타내는 요소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위계들은 유생성의 하위 개념을 이루고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Yamamoto(1999), Langacker(1991), Foley & Van Valin(1985), Givón(1979)이 제시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 유생성 위계 (General Scale of Animacy)와 인칭 위계(Hierarchy of Persons), 개별성 위계 (Individuation Scale)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일반적 유생성 위계

일반적 유생성 위계는 유생성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서 생명의 존재여부를 구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물(animate)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무생물(inanimate)이라고 한다.

(1) 일반적 유생성 위계(General Animacy Scale)

생물 > 무생물

유생성을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특정한 의미 때문이다. Locke(1964)와 Fowler(1977: 16-17)는 ‘운동성(locomotion)’을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짓는 의미적 자질로 두고 있다. 그들은 운동성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나 변화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생물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무생물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식물과 아메바를 예로 들어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식물은 자라고 꽃을 피우는 활동을 하지만 운동이 없으므로 전형적인 생물로서 인지될 수 없고 육안이 아닌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아메바도 운동을 하더라도 생물로서 인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개체들이 인간과 너무 동떨어진 영역에 속해 있을뿐더러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개체이므로 ‘유정성(sentiency)’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정성이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생물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의미적 자질로 작용한다.

지금까지는 유생성을 단순히 생물과 무생물로 나눈 일반적인 위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 (2)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시킨 수정된 유생성 위계를 살펴보자.

(2) 수정된 유생성 위계

인간 > 동물 > 무생물

수정된 유생성 위계는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인간이 동물의 범주이기는 하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 결과로 동물보다 높게 위치한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 내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Lakoff(1987: 6장)

는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생성이 정도(gradient)를 지니고 있으므로 유생성의 정도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즉 유생성이 높으면 유생성의 범주 안에서 핵심 구성성분이 되어 전형적으로 요소로 보고 유생성이 낮으면 그 범주 안에서 주변적인 요소가 되어 하위의 위계에 놓이는 것이다.

Yamamoto는 일반적 유생성 위계를 Lakoff(1987)의 원형이론을 적용하여 유생성이 높은 인간범주를 중심에 놓고, 중심에서 멀어 질수록 유생성의 정도가 약해지는 요소를 두었다.

지금까지 인간을 다른 생물 보다 상위에 두어 일반적 유생성 위계를 더욱 세분화 시킨 수정된 유생성 위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인간을 화자, 청자, 제삼자로 더 세분화 시킨 인칭 위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2 인칭 위계(Hierarchy of Persons)

Langacker(1991: 307)는 앞에서 제시한 유생성 위계를 ‘발화역할(speech role)’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하여 아래 (3)과 같은 인칭 위계를 제시하였다.

(3) 화자 > 청자 > 제삼자 > 생물 > 물리적 사물 > 추상적 개체

인칭 위계에서는 인간의 범주가 1인칭 화자(speaker), 2인칭 청자(address), 그리고 3인칭(others)인 제삼자가 발화역할(speech role)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3)에서 화자는 인칭 위계 내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다음으로 청자, 제삼자 순으로 배열된다.

인칭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은 ‘감정이입’(Foley와 Van Valin 1985)에 의한 유생성의 정도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칭 위계를 감정이입 위계(empathy hierarchy)라고 부른다. 감정 이입을 많이 할수록 유생성이 높아지는데, 화자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화행위(speech act)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서 청자에 비해 유생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제삼자는 발화 참여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발화 참여자인 청자에 비해서 감정이입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유생성도 낮아진다.

인칭 위계는 지시성 즉 ‘직접성(directness)’과도 관계가 있다. 본질적으로 화자인 1인칭(speaker)과 청자(addressee)인 2인칭은 발화사건에 참여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지칭되기 때문에 직접성을 가지게 된다(Lyons 1977: 848, Anderson과 Keenan 1985: 259, Holiday 1985: 291). 이러한 직접성은 지시 표현은 체면손상현상(face threatening effect)을 일으킨다.

일본어에서는 체면손상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피하고 3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다(Yamamoto 1999: 74).

영어에서는 체면손상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4)과 같이 appear, look, seem과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Brown과 Levinson 1978: 195-211).

- (4) a. It appears (seems to me) that I was wrong.
b. There are no buses so it looks like we'll be walking home.

(4a, b)에서는 I think를 대신하여 가주어 it이 이끄는 appear, look, like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였다.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책임이나 청자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다. 화자는 청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피하기 위해서 (5a) 대신에 (5b)의 표현을 이용한다.

- (5) a. If you can,
b. If it is possible,

또, 2인칭의 사용으로 생기는 체면손상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3인칭 총칭 대명사 one을 사용하기도 한다.

- (6) a. You shouldn't do things like that.
b. One shouldn't do things like that.

(6b)에 사용된 one은 you를 포함한 총칭을 의미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므로 you보다 유생성이 낮다. you대신 one을 사용하여 체면손상영향을 줄인 것이다.

3인칭은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발화 영역 내에서 영향을 받는 방관자(bystander)로 간주된다(Leech 1983: 48-51). 3인칭이 발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지칭이 되더라도 본질적으로 지시성이 약해서 1, 2인칭에 비해서 유생성 정도는 낮다(Anderson과 keenan 1985: 261, Halliday와 Hasan 1976).

- (7) a. Does he take sugar? ('he의' 존재)
b. Watch out! He must be totally drunk!

(7a)는 발화행위의 참여자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체면손상 현상을 나

타내고, (7b)는 3인칭 대명사 he가 발화상황에 나타나고 있지만 he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지칭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유생성이 낮다.

지금까지 일반적 위계를 발화 역할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한 인칭 위계에 대해 알아보고 인칭 위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과 현상들을 예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인칭 위계의 3인칭을 세분화 한 개별성 위계에 대해 알아보자.

2.3 개별성 위계(Individuation Scale)

Foley & Van Valin(1985: 288)은 명사적 표현들의 위계를 아래 (7)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를 개별성 위계라고 한다. 개별성 위계는 한 개체가 얼마나 한정적(limited)이고 식별가능한지(identifiable)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8) 화자/청자 > 제삼자 > 사람고유명사 > 사람보통명사 >
다른 생물명사 > 무생물명사

이 위계는 인칭 위계의 3인칭을 세분화 한 것으로 화자, 청자 그리고 제삼자는 대명사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므로 대명사(pronoun), 사람고유명사(human proper nouns), 보통명사(common noun phrases) 사이의 위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8)를 다시 표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인칭)대명사 > (사람)고유명사 > 보통명사

(9)에서 (8)의 보통명사와 다른 생물명사 그리고 무생물명사를 한꺼번에 보통명사로 묶어서 나타낸 이유는 어떤 명사를 사람, 생물, 무생물로 구분하는 구분법은 앞서 살펴본 유생성 위계의 구분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Mühlhäusler and Harre(1990)는 대명사를 ‘본질적 인간’(bare human being)으로 표현하고, 이 지시어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내포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인칭 대명사가 유생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그 본질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명사 다음으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보다 유생성이 높다.

- (10) a. Can I speak to John, please?
b. Can I speak to the junior bursar, please?

(10a)에서는 John이라는 이름이 직접 불러진 반면, (10b)에서는 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역할인 the junior bursar로 불렸다. John은 그의 역할로 불림으로써 그가 일하는 곳을 대표하는 비인간화(dehumanised), 제도화(institutionalized)된 개체가 된다. 이로 인하여 I와 the junior bursar와의 심리적인 거리는 I와 John과의 심리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지게 됨으로 the junior bursar은 John보다 개별성이 낮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유생성의 위계를 살펴보고 이 위계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위계는 유생성을 크게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일반적 위계가 이것이 더욱 세분화 된 것이 수정된 유생성 위계이다. 이 위계는 생물 내에서 인간과 동물을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인간이 동물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인칭 위계는 인간의 범주 내에서도 1, 2, 3인칭으로 세분하여

위계를 제시한다. 이 위계는 지시어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1, 2인칭은 3인칭에 비해서 직접적인 표현이면서, 많은 감정이입을 수반함으로 유생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개별성 위계를 살펴보았다. 개별성 위계는 명사적 표현의 위계로 개별적 개체가 얼마나 식별가능하고 한정적인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성 위계와 인칭위계를 중심으로 유생성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언어 자료 및 연구 방법

3.1 언어 자료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지시 표현에서 나타나는 유생성의 부호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가지 병렬자료(parallel corpus)를 조사하였다. 첫째는 영어 원문과 그것의 한국어 번역문인 영한 병렬언어자료이고, 둘째는 한국어 원문과 그것의 영어 번역문으로 구성된 한영 병렬자료이다. 병렬자료는 같은 내용이 다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 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영어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문은 자료 1과 같이 Reader's Digest와 그 영한 대역, 자료 2와 같이 Newsweek지에서 발췌한 기사와 그 영한 대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선정에 있어서 장르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3.1.1 영한 병렬언어자료

자료 1. Reader's Digest와 그 한국어 번역문

- ① “The promise” by Joe Rao와 “할아버지의 약속”
- ② “Court jester of Tennis” by Rudolph Chelminski와 “테니스 코트의 광대”
- ③ “Let's put the heat on campus cheats” by Stephen Barr와 “부

정행위가 판치는 캠퍼스”

- ④ “Turning the page” by Martha Randolph Carr와 “책장을 넘기며”
- ⑤ “Are your kids making you sick?” by Anita Bartholomew 와 “아이들이 세균을 퍼뜨린다.”

자료 2. Newsweek

- ① “The wrong plan for schools?”와 “표적 빗나간 일본 교육개혁”
- ② “The new prime time”와 “40대 이후 갭년기 슬기롭게 대처하자.”
- ③ “The final hunt”와 “악어 사냥꾼 최후의 모험”
- ④ “Cancer and staying fit”와 “유방암도 이겨낸다.”
- ⑤ “A Saudi desert fox”와 “사우디의 ‘중동구하기’”

3.1.2 한영 병렬언어자료

한국어 원문과 그 영어 번역문으로는 자료 3과 같이 신경숙(1993)의 단편 소설 『풍금이 있던 자리』와 이를 Tennant, Agnita M(1998)이 영어로 번역한 Where the Harmonium Was를 선택하였다.

자료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3.2 연구 방법

유생성은 지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지시 표현이란 등장인물(participant)을 가리키는 지칭어로서 대명사(pronoun), 고유명사(name), 보통명사(common noun)로 나타난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지시 표현들이 담화·인지적인 이유로 생략(ellipsis)되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지시 표현의 한 종류로 다룬다.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시 표현이 자료에 사용된 빈도를 조사하였다. 아래에서는 조사 항목으로 사용된 네 가지 종류의 지시 표현이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조사되었는지를 본다.

3.2.1 대명사

본 논문에서 대명사²⁾는 대명사를 말하는데 먼저 영어의 대명사를 살펴보자. 대명사는 1, 2, 3인칭별로 주격, 목적격 그리고 재귀대명사로 한정한다. 단, 2인칭은 단·복수 구분 없이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영어의 2인칭 대명사 you가 형태적으로 단·복수의 구분이 없고, 둘째로는 문맥 내에서 단·복수를 추정할 수 있더라도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인칭은 (11a, b)과 같이 I, me, myself, we, us, ourselves, 2인칭은 (12a, b)과 같이 you, yourself, yourselves, 3인칭은 (13a, b, c)과 같이 he, she, they, him, her, them, himself, herself, themselves의 형태를 가지는 대명

2) Quirk et al.(1985: 345)은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그리고 재귀대명사를 중심대명사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심대명사중에서도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사로 국한한다.

- (11) a. *I* tried to look both congratulatory and empathetic as *I* waited for him to tell *me* how he had done.

(자료 1, Reader's Digest "turning the page")

- b. What have *we* learned from reporting about midlife?

(자료 2, Newsweek "The new prime time")

- (12) a. When *you* saw something beautiful, *you* used to say, *you* felt sad.

(자료 3, Where the Harmonium Was)

- b. Three or four times a week, he says, clean and disinfect the places that the kids touch most and *you'll* protect *yourself* from a mess of germs

(자료 1, Reader's Digest, "Are your kids making you sick?")

- (13) a. *She'd* had her first hot flash!

(자료 2, Newsweek, "The new prime time")

- b. The school paid for *him* to become a member of Recoding for the Blind & Dyslexic.

(자료 1, Reader's Digest, "Turning the page")

- c. Today *they* have two sons.

(자료 1, Reader's Digest, "Court jester of Tennis")

다음은 한국어의 대명사를 살펴보자. 한국어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내’, ‘나’, 겸사말인 ‘저’, ‘제’, 그리고 주격조사와 결합된 ‘난’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1인칭 복수는 ‘우리들’, ‘우리’와 같은 형태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연구대상으로 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면 1인칭 복수 대명사는 (14a)의 ‘나는’과 (14b)의 ‘나를’과 같은 형태를, 1인칭 복수 대명사는 (15)과 같이 ‘우리가’를 대명사로 분류하였다.

- (14) a.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갓난아기인 누이동생과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으로 이주했다.

(자료 1, Reader's Digest “할아버지의 약속”)

- b. 텃밭으로 가는 길에 물을 길어 나르던 장성택을 만났는데, 장성택은 물동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와 **나를** 쳐다봤어요.

- c. 그러다가 문득 **저도** 그 여자처럼 이를 닦아보고 싶어졌어요.

(자료 3, 『풍금이 있던 자리』)

- (15) **우리가** 중년의 삶을 취재하면서 배운 사실이 있다면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이다.

(자료 2, Newsweek “40대 이후 갱년기 슬기롭게 대처하자.”)

2인칭은 본 논문에서 (16a, b)와 같이 ‘너’, ‘자네’, ‘당신’, ‘넌’, ‘너희들’ 등으로 나타난 형태를 대명사라고 한다. 2인칭의 단·복수 구분이 없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형태소 어미 ‘-들’이 첨가되어 단·복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2인칭은 담화 속에서 단·복수가 항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영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복수를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16) 제가 **당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데도 **당신**은 떠나시는 겁니까?

(자료3. 『풍금이 있던 자리』)

3인칭에서는 (17a, b)과 같이 ‘그’/‘그녀’와 같은 형태를 대명사로 본다.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는 (18)에서 접미사 ‘-들’이 붙는 ‘그들’과 같은 형태를 대명사로 한정한다.

(17) a. 마침내 **그**가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어느 선수가 라켓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자료 1, Reader's Digest, “테니스 코트의 광대”)

b. **그녀**가 최초로 겪은 현상은 바로 ‘일과성전신열감(‘안면홍조’라고도 한다)’이다.

(자료 2, Newsweek, “40대 이후 갱년기 슬기롭게 대처하자.”)

(18) **그들**이 정상적인 생리주기에서 생리가 없는 1년간으로 가는 전환기를 맞았다는 뜻이다.

(자료 2, Newsweek, “40대 이후 갱년기 슬기롭게 대처하자.”)

영어에서 ‘-self’로 표현되는 재귀대명사를 대명사에 포함하였듯이 한국어에서도 ‘-자신’이 붙는 재귀대명사를 대명사로 다룬다.

(19)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

(자료 1, Reader's Digest, “할아버지의 약속”)

3.2.2 보통명사

보통명사(common noun phrases)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본 논문에서 주로 인물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역할, 직업, 가족 관계, 연령, 성을 말해주는 명사들을 뜻한다. (20), (21)과 같이 ‘her teacher’와 ‘doctors’는 한 개체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나 신분을 말한다. (22), (23)와 같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my grandfather’ 과 ‘my youngest brother’, ‘큰오빠’도 보통명사 범주에 넣는다.

- (20) a. Most painfully, she says, *her teachers* refused to help.
b. 무엇보다 교사들이 도와주려하지 않아 고통스러웠다고 아유미는 말했다.
(자료 2. Newsweek, “The wrong plan for schools?”)
- (21) a. Instead, *doctors* say women should make every effort to avoid medication by making lifestyle changes that have been shown to help stepping up physical activity.
b. 대신 의사들은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통해 최대한 투약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한다.
(자료 2. Newsweek, “The new prime time”)
- (22) a. One morning when I was six years old, *my grandfather* told me there would be an eclipse of the sun that afternoon.
b. 내가 여섯 살이던 해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그날 오후에 일식

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료 1. Reader's Digest, "The promise")

- (23) a. It was the year *my youngest brother* was born, so I must have been seven.

b. **막내동생**이 막 태어나던 해였으니, 일곱 살이 맞겠습니다.

(자료 3, Where the Harmonium Was)

- (24) **큰오빠**는 우리 셋을 나란히 줄 세웠어요.

(자료 3. 『풍금이 있던 자리』)

(25), (26)와 같은 소속을 나타내는 ‘클럽 회원들’이나 같은 연령을 나타내는 ‘아이들’ (27)에서 성을 나타내는 ‘여자’도 보통명사에 포함시킨다.

- (25) 그때 경비원 한 사람이 달려와 소년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클럽 회원들**만 코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자료 1. Reader's Digest, "테니스 코트의 광대")

- (26) 아침 수업종이 울리자 25명 저도의 귀여운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밝고 깨끗한 교실로 들어온다.

(자료 1. Reader's Digest, "아이들이 세균을 퍼뜨린다.")

- (27) 그때까지 저는 그토록 뽀얀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자료 3. 『풍금이 있던 자리』)

3.2.3 고유명사

본 논문에서 고유명사는 이름(name)을 가리킨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성의 구분 없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름으로 한정한다.

(28) a. From his hotel bed in Cairns, Australia, *John Stainton* stared at the ceiling and waited for sleep to take him.

b. 존 스테인턴은 호주 케언스의 호텔 침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료 2. Newsweek, “The final hunt”)

(29) When I told *Louie* about the diagnosis, he didn't look hurt or confused.

(자료 1. Reader's Digest, “책장을 넘기며”)

3.2.4 생략

생략(ellipsis)은 문법적인 탈락현상으로 생략된 부분은 암묵적으로 문맥 내에서 존재하고 생략이 일어난 부분은 문장의 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복원될 수 있다(Quirk et al. 1985: 884). 생략은 유생성이 낮은 지시표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생략의 개념에 근거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생략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문장 내에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중요 성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³⁾Yamamoto(1999)를 따라서 생략을 유

생성이 낮은 것으로 보겠다. 다음의 예를 통하여 생략을 살펴보자.

(30)에서는 4개의 동사가 등장했는데 그에 따른 주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주어가 모두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30) 그 열흘 중의 어느 날은 (she) 보리를 다 빼고 (she) 쌀에 수수를 넣은 밥을 지었으며, 또 어느 날은 (she) 입에 쪽쪽 들어가기 좋을 만큼의 크기로 만두를 빚어서 (she) 밥 대신 만두국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자료 3. 『풍금이 있던 자리』)

(31) 우리는 곧 뒷마당에 나가 또다시 (we) 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자료 1, Reader's Digest, “할아버지의 약속”)

(32) After (you) handling food, after (you) using the bathroom, and any other time you think you might have come in contact with germs.

(자료 1. Reader's Digest, “Are your kids making you sick?”)

영어에서는 분사구문일 경우에도 동사에 대한 주어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생략이 일어났다고 한다. 예문 (33)에서 보면 분사 구문 내에서 동사앞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를 생략에 넣는다.

(33) He delighted in challenge games, (he) playing left-handed, with one eye blindfolded or legs bound and (he) hopping around like

3) Yamamoto(1999)는 개별성 위계, 인칭위계 이 외에 접근가능성 위계 (Accessibility Scale)에 근거하여 지시표현의 유생성 정도를 나타내었다.

a bunny.

(자료 1. Reader's Digest, "Court jester of Tennis")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볼 언어자료와 연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언어자료에 나타나는 지시 표현의 빈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그것을 통하여 같은 내용이 다른 언어로 쓰여졌을 때 지시 표현의 빈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지시표현에서 나타나는 유생성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IV. 지시 표현의 유생성 부호화

이 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 표현으로 나타나는 유생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성 위계를 기준으로 하는 생략,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사용빈도와 인칭 위계를 기준으로 하는 1, 2, 3인칭 지시표현의 사용빈도를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가 다른 종류의 지시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개별성위계와 인칭위계를 중심으로 두 언어의 지시 표현의 사용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유생성의 부호화 경향을 알아보겠다.

먼저 개별성 위계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와 영어에서 나타나는 생략,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사용 빈도에 대해 살펴보자.

4.1 개별성 위계

개별성 위계는 인칭 위계의 3인칭을 세분화 한 것으로 화자, 청자 그리고 제삼자는 대명사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므로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 사이의 위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명사가 유생성 위계가 가장 높고 보통명사가 가장 낮은 유생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1인칭에서 3인칭 순으로 논하기로 한다.

4.1.1 1인칭

(1)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 지시어는 자료 1에서 3까지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 총 492개 한국어에서 총 432개로 나타났다. 1인칭 단수가 생략,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나타난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1인칭 단수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략	9.6%(47)	65.5(283)
대명사	90.4%(445)	34.5(149)
고유명사	0%(0)	0%(0)
보통명사	0%(0)	0%(0)
합계	100%(492)	100%(432)

<표 1>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대명사와 생략에서 볼 수 있다.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90.4%로 나타난 반면, 생략은 9.6%로 나타났으므로 생략보다는 대명사가 약 10배 정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생략의 사용빈도가 65.5%로 대명사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나서, 영어에서 사용된 지시 표현의 사용 분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실제로 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먼저 한국어와 이를 영어로 번역한 병렬자료에서 예를 들어보자. 한국어에서는 (35a)과 같이 이야기의 서술자인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생략된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35b)과 같이 한국어에서 생략된 대명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영한 병렬자료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36a)과 같이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 반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36b)과 같이 영어에서

사용된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35) a. 저는 “정말이에요?” 하며 (I) 웃었습니다.

b. I said, " Is it true?" as I smiled incredulously.

(자료 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36) a. At long last, I stopped talking and I began listening

b. 마침내 나는 입을 다물고 (I) 듣기 시작했다.

(자료 1, Reader's Digest “turning the page”)

위의 예들은 동일한 지시대상이 두 언어에서 각기 서로 다른 지시 표현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35), (36)를 통하여 지시 표현의 사용 빈도를 보면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1인칭 단수 대명사는 화자로서, 감정이입이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생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이 영어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유생성 위계가 높은 대명사가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영어가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반면, 한국어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사용되는 대신에 그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영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는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료 1에서 자료 3까지의 전체자료를 조사한 결과였다.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해서 병렬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나타낸 것이므로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와의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영한 병렬언어자료인 자료 1(Reader's Digest)과 자료 2(Newsweek)를 조사하였고, 한영 병렬언어자료인 자료 3(『풍금이 있던 자리』)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2> 1인칭 단수의 병렬자료의 지시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한국어	영어(번역문)
생략	8.3%(5)	36.8%(21)	69.1%(262)	9.7%(42)
대명사	91.7%(55)	63%(36)	30.1%(113)	90.3%(390)
고유명사	0%(0)	0%(0)	0%(0)	0%(0)
보통명사	0%(0)	0%(0)	0%(0)	0%(0)
합계	100%(60)	100%(57)	100%(375)	100%(432)

<표 2>에서 우선 영한 병렬언어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91.7%로 8.3%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동일하게 대명사 사용이 63.2%로 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번역문은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경향에서 벗어난 듯하다. 이것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보다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69.1%로 대명사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영어 번역문에서는 대명사가 90.3%로 생략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번역문이 번역 과정에서 영어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대명사 사용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한영 병렬언어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1>과 동일하다. 즉,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고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

으므로 그 반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2)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 지시어는 자료(1-3)를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 총 43개, 한국어에서 총 33개로 나타났다. 1인칭 복수 지시어의 생략,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사용 비율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3> 1인칭 복수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략	9.3%(4)	63.6%(21)
대명사	90.7%(39)	36.4%(12)
고유명사	0%(0)	0%(0)
보통명사	0%(0)	0%(0)
합계	100%(43)	100%(33)

1인칭 복수 지시어는 조사 결과 생략과 대명사로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난 두 언어의 지시 표현 분포는 1인칭 단수 지시어를 조사한 <표 1>과 유사하다. 영어는 대명사 사용빈도가 90.7%로 생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한국어는 생략이 63.6%로 대명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1인칭 단수의 지시표현 분포에서 살펴보았던 방식으로, 자료에서 발췌한 예들을 통하여 살펴보자. 병렬자료에서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37a)과 같이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생략된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37b)과 같이 한국어에서 생략된 대명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영한 병렬언어자료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38a)과 같이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38b)과 같이 영어에서 사용된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37) a. 실비라서 우산 (**we**) 쓸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는데, (**we**) 돌아올 때는 제 머릿결이, 아버지 어깨가 축축했어요. (**we**) 새를 잡으러 나갔었습니다.

b. As the rain was so light **we** did not bother to put up our umbrellas but by the time **we** turned homeward my hair and father's shoulders were quite wet. **we** had gone out to shoot birds.

(자료 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38) a. It sill be about 24 hours before **we**'ll have the fecal-bacteria results.

b. 분변 박테리아가 있는지 여부는 24시간이 지나야 (**we**) 알 수 있다.

(자료 1, Reader's Digest "Are your kids making you sick?")

이와 같이 같은 지시대상이 영어에서는 대명사로 많이 나타나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으로 나타났으므로 두 언어의 대명사, 생략의 정도가 각각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현상을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영어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1인칭 단수 지시어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와 특징과 동일하다. 즉,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려는 언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료 1에서 자료 3까지의 전체자료를 조사한 결과였다. 자료

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병렬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표 4> 1인칭 복수의 병렬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한국어	영어(번역문)
생략	16%(4)	63%(17)	66.7%(4)	0%(0)
대명사	84%(21)	37%(10)	33.3%(2)	100%(18)
고유명사	0%(0)	0%(0)	0%(0)	0%(0)
보통명사	0%(0)	0%(0)	0%(0)	0%(0)
합계	100%(25)	100%(27)	100%(6)	100%(18)

<표 5>에서 영한 병렬언어자료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대명사 사용빈도가 84% 생략보다 약 5배 이상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생략이 63%로 대명사보다 약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대명사 보다 2배로 사용되었고, 영어 번역문에서는 생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인칭대명사만이 지시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병렬자료를 조사한 결과, 영어와 한국어가 지시 표현으로 유효성을 부호화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1.2 2인칭

2인칭 지시어는 전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영어서 총 131개 한국어에서 총 78개로 나타났다. 2인칭 지시어의 생략,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사용 비율은 아래의 <표 5>과 같다.

<표 5> 2인칭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략	14.5%(19)	57.7%(45)
대명사	85.5%(112)	42.3%(33)
고유명사	0%(0)	0%(0)
보통명사	0%(0)	0%(0)
합계	100%(131)	100%(78)

2인칭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도 1인칭과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생략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85.5%로 14.5%인 생략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57.7%로 42.3%의 대명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자. 먼저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39a)과 같이 2인칭 대명사가 모두 생략된 반면, 영어에서는 (39b)과 같이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에서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40a)과 같이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40b)과 같이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39) a. 제 표현이 모자라서 **(you)** 이 편지를 다 읽으시고도 **(you)** 제 마음이 야속하시면..... 그러면 또 어떡해야 하나...

b. If, through my inadequate expression, **you** still resent me for what I n thinking even after **you** have read this through... then what must I do?

(자료 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40) a. When **you** come in from outside, before meals, after **(you)**

handling food, after (you) using the bathroom, and any other time you think you might have come in contact with germs.

- b. (you) 밖에서 돌아왔을 때, 식사 전에, (you) 음식을 만진 후에, (you) 용변을 본 후에, 그리고 (you) 세균을 만졌다는 생각들이 때마다 반드시 (you) 손을 씻으라는 것이다.

(자료 1, Reader's Digest "Are your kids making you sick?")

지금까지는 자료 1에서 자료 3까지의 전체자료를 조사한 결과였다. 다음은 병렬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표 6> 2인칭의 병렬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한국어	영어(번역문)
생략	32.3%(10)	78.9%(15)	50.8%(30)	9%(9)
대명사	67.7%(21)	21.1%(4)	49.2%(29)	91%(91)
고유명사	0%(0)	0%(0)	0%(0)	0%(0)
보통명사	0%(0)	0%(0)	0%(0)	0%(0)
합계	100%(31)	100%(19)	100%(59)	100%(100)

<표 6>에서 먼저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는데 반해 영어 번역문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영한 병렬언어자료를 살펴보면 생략이 근소한 차이로 대명사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글이 1인칭 화자가 2인칭 청자에게 편지를 쓰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글의 특성상 대명사의 사용이 잦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런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비율만으로 비교를 하면 앞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앞서 논의 했듯이, 영어와 한국어가 유생성을 나타내려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4.1.3 3인칭

(1)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지시어는 자료(1-3)를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 총 841개 한국어에서 총 977개로 나타났다. 3인칭 지시어가 단수로 나타난 빈도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이 표는 고유명사나 보통명사의 사용이 앞서 조사한 두 인칭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3인칭에서는 다양한 지시 표현의 사용빈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표 7> 3인칭 단수의 지시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략	19.3%(162)	35.7%(349)
대명사	42.9%(361)	9.8%(95)
고유명사	15%(126)	14.5%(142)
보통명사	22.8%(192)	40%(391)
합계	100%(841)	100%(977)

<표 7>에서 보듯이,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42.9%로 가장 높고 보통명사가 22.8% 그리고 고유명사가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보통명사가 40%로 그 다음으로 고유명사가 14.5% 그리고 대명사가 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시 표현들은 개별성 위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자가 내포하는 유생성의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유생성 위계가 생긴다. 개별성 위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대명사는 유생성이 가장 높고, 고유명사, 보통명사 순으로 유생성이 낮아진다. 영어에서 사용된 지시 표현은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보통명사, 고유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유생성이 낮은

보통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유명사, 대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어서 영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 표현일수록 많이 사용하는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유생성이 낮은 지시 표현일수록 많이 사용하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우선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41a)과 같이 3인칭 단수 대명사의 생략이 일어난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41b)과 같이 3인칭 단수 대명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영한 병렬언어자료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42a)과 같이 주어로 3인칭 단수 대명사가 사용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42b)과 같이 영어에서 사용된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41) a. 여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 (**she**) 제 손을 이끌고 다시 샷문을 통해 (**she**)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b. She did not seem to think that it mattered. **she** held my hand as **she** led me through the side gate into the house.

(자료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42) a. But when **she** and her son got back in the car, **she** panicked

b. 그러나 아들과 함께 (**she**) 자동차로 돌아온 순간 (**she**) 공포감을 느꼈다.

(자료 2, Newsweek, “The new prime time”)

위와 같이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

이 일어나는 예들이 자료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3인칭에서는 1, 2인칭에 비하여 생략과 대명사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3인칭에서 고유명사, 보통명사와 같은 지시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략과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3인칭 단수에서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지시표현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나는 생략과 대명사의 빈도 외에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사용빈도를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발췌한 예를 통하여 3인칭단수에서 나타나는 대명사, 고유명사 그리고 보통명사가 한국어와 영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자.

발췌한 예는 영어에서 대명사가 한국어에서 고유명사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어와 그 영어번역문인 (43)에서 (43a)의 고유명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인칭 대명사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영한 병렬언어 자료에서는 반대로 일어난다. 즉, (44)에서처럼 영어에서 (44a)의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44b)의 고유명사로 다르게 나타난다.

(43) a. “텃밭이 어디니”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b. **She** came close to me and as she touched my shoulder, she said, “Child, can you show me where the vegetable plot is?”

(자료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44) a. One day **he** attended a parent-teacher conference with my mother and was told by my Spanish teacher that I might fail.

b. 하루는 **할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사진회에 참석하셨는데 나의

스페인어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스페인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자료 1, Reader's Digest "The promise")

이것을 개별성 위계로 분석하면, 영어에서 유생성 위계가 높은 대명사가 한국어에서는 위계가 낮은 고유명사로 나타났으므로 이것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결과이다. 즉, 지시표현에 있어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한국어는 유생성이 낮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다음은 영어에서 대명사가 한국어에서 고유명사로 나타난 예이다. (45)에서 영어에서는 (45a)과 같이 대명사 she로 나타났으나 한국어에서는 (45b)과 같이 사람고유대명사로 나타났다. 개별성 위계에서 대명사가 사람고유대명사보다 유생성이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즉,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에서 유생성이 높은 인칭 대명사가 한국어에서는 유생성 위계가 한 단계 낮은 고유명사로 부호화 되어 유생성이 약화되었다.

(45) a. Now **she's** taking the school to court.

b. 이제 **고모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작정이다.

(자료2, Newsweek, "The wrong plan for schools?")

(46) a. **He** showed me the scores, tapping the grade sheets with all the zeroes: "Louie is giving up" he said.

b. **리블**은 모두 0점을 받은 성적표를 툭툭 두드리면서 "루이는 포기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자료 1, Reader's Digest “Turning the page”)

다음은 유생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자. 3인칭에서 영어는 유생성이 강한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유생성이 약한 생략과 보통명사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1, 2인칭에서와 달리 3인칭에서는 고유명사로 보통명사의 사용이 두드러졌는데, 영어에서 높은 위계에 있는 지시표현이 한국어에서는 낮은 지시표현으로 다르게 나타난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에서 합한 병렬자료를 각각 발췌하여 조사한 <표 8>을 살펴보자.

<표 8> 3인칭 단수의 병렬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한국어	영어(번역문)
생략	19%(92)	33.4%(206)	39.7%(143)	19.6%(70)
대명사	34.6%(167)	15.2%(94)	0.3%(1)	54.2%(194)
고유명사	26.1%(126)	23%(142)	0%(0)	0%(0)
보통명사	20.3%(98)	28.4%(175)	60%(216)	26.2%(94)
합계	100%(483)	100%(617)	100%(360)	100%(358)

먼저 영한 병렬언어자료를 살펴보자.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유명사, 보통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생략이 가장 많았고 보통명사, 고유명사, 대명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별성 위계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즉,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위계가 이루어 지고 한국어는 정반대의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영어는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고 한국어는 약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이다.

(2)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는 자료(1-3)를 조사한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영어에서 총 216개 한국어에서는 총 166개가 나타났다.

<표 9> 3인칭 복수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략	14.8%(32)	38.3%(64)
대명사	25%(54)	6.3%(11)
고유명사	1.4%(3)	0.3%(1)
보통명사	58.8%(127)	55.1%(92)
합계	100%(216)	100%(166)

3인칭 복수의 지시어로 보통명사는 두 언어에서 모두 많이 사용되었다. 영어에서는 보통명사의 사용빈도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명사의 사용은 다른 인칭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도 보통명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어에서 대명사가 사용된 빈도에 비해 생략이 한국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다음은 위의 결과를 자료에서 발췌한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먼저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47a)과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모두 생략된 반면, 영어에서는 (47b)과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영한 병렬언어자료에서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48a)과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48b)과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 (47) a. **(they)** 그냥 내버려둔 거지요. 제가 뒤란에서 울고 있거나, 제가 앞집 아이가 신은 색동 코고무신을 신고 싶어 애달아 하는 것, 제가 오빠가 입던 스웨터는 입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을

(they) 다 내버려둔 거지요.

- b. **They** just let me be. **They** took no notice of me if I cried in the backyard : fretted for a pair of shoes like those of the girl in the house opposite, with the toes trimmed with bright colours: or my wish not to wear a sweater handed down my brother.

(자료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 (48) a. First-time offenders can petition the school to remove the X after they complete a six-week seminar, though the F is permanent.
- b. 첫 번째 위반일 때는 6주 동안 단기 재수강 과정을 거친 후 (they) 학교당국에 X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F는 영구히 남는다.

(자료 1, Reader's Digest "Let's put the heat on campus cheats")

다음은 발췌한 예를 통하여 한국어와 영어에서 타나나는 대명사, 고유명사, 그리고 보통명사의 사용 빈도에 대해 살펴보자. (49)에서 한국어에 타나나는 보통명사가 영어에서는 대명사로 바뀌었고, (50)는 영어원문에서 나타난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보통명사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대로 영어에서는 개별성 위계에서 유생성 위계가 높은 대명사가 한국어에서는 낮은 보통명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어가 유생성을 더 강하게 부호화 한다는 지금까지의 결론과 동일하다.

- (49) a. 당신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나면 **이분들**을 살아생전에 다시 뵈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 b. Once I had boarded a plane with you, I doubted whether I would see **them** again in their life time.

(자료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 (50) a. **They** all use T.J.'s bat, so that's one of the first objects Gerba swabs.

- b. **아이들은** 모두 티제이의 배트를 사용했다. 거바 박사는 제일 먼저 그 배트의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렀다.

(자료 1, Reader's Digest, "Are your kids making you sick?")

앞에서 많은 예문에서 살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대명사가 한국어에서는 생략되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일어난 성분이 영어에서 대명사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에서 합한 병렬자료를 각각 발췌하여 조사한 <표 10>을 살펴보자.

<표 10> 3인칭 복수의 병렬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한국어	영어(번역문)
생략	12.4%(17)	39.5%(49)	34.1%(15)	19.2%(15)
대명사	12.4%(17)	4.9%(6)	11.4%(5)	47.4%(37)
고유명사	1.5%(3)	0.8%(1)	0%(0)	0%(0)
보통명사	73.7%(101)	56%(68)	54.5%(24)	33.4%(26)
합계	100%(216)	100%(124)	100%(44)	100%(78)

3인칭 복수의 자료에서 영한 병렬언어자료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대명

사의 사용빈도가 12.4이고 보통명사가 월등히 73.7%로 높게 나타났지만 영어와 비교해서 생략이 39.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영 병렬언어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는 보통명사의 사용빈도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략도 34.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병렬자료에서도 3인칭의 본질적 성격으로 두 언어가 모두 3인칭 보통명사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이 많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영어는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고 한국어는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개별성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지시표현 사용빈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영어에서는 개별성 위계가 높은 대명사의 사용이 높았고 한국어에서는 위계가 낮은 생략이나 보통명사의 사용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유생성이 낮은 지시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인칭 위계를 중심으로 유생성 부호화의 경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4.2 인칭위계

인칭 위계는 수정된 유생성 위계를 발화역할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한 것이다. 즉 화자인 1인칭, 청자인 2인칭 그리고 화자도 청자도 아닌 제 3자인 3인칭으로 분류한 것이다. 화자인 1인칭은 인칭 위계 내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그다음으로 청자 2인칭, 제3자 3인칭으로 배열된다. 인칭 위계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에서 나타난 1, 2인칭 지시표현과 3인칭 지시표현

의 비율은 아래의 <표11>과 같다.

<표 11 인칭별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1, 2인칭	38.6%(666)	27.6%(465)
3인칭	61.4%(1057)	67.8%(1143)
합계	100%(1723)	100%(1686)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영어와 한국어의 1, 2, 3인칭의 비율을 각각 비교 해보면 영어와 한국어 모두 3인칭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비교해 보면 영어에서 1, 2인칭은 38.6%인 반면 한국어는 27.6%로 영어가 약 10%정도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3인칭에서는 영어가 61.4%, 한국어는 67.8%로 한국어가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즉, 1인칭과 2인칭의 지시표현의 사용은 영어가 모두 높고 반해 3인칭 지시 표현의 사용은 한국어가 더 높다.

이와 같은 예를 실제로 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51)에서 (51a)는 3인칭 보통명사로 나타난 반면 (51b)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나타난다.

- (51) a. 여자는 우리 **형제들**⁴⁾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지만 우리는 큰오빠의 위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b. She spoke to **us** pleadingly but she could not defuse his arrogant dignity.

(자료3. 『풍금이 있던 자리』와 Where the Harmonium Was)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이 2인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영어에서는 2대

4) ‘우리 형제들’에서 핵어(head)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보통명사로 분류하였다.

명사로 나타지만 한국어에서는 대명사가 아닌 3인칭 보통명사로 나타난다. (52)에서 (52a)에서 2인칭 대명사가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3인칭 보통명사로 나타났다.

(52) a. Some sites are free, as long as **you** contribute a paper of your own, while others charge anything from a modest membership fee to over \$100 a paper.

b. 일부 사이트는 **이용자**가 자기 논문 1편을 제공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료 1, Reader's Digest "Let's put the heat on campus cheats")

이것을 유생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영어에서 유생성이 높은 1, 2인칭 지시표현이 한국어에서 3인칭으로 다르게 부호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위의 예들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1, 2인칭과 3인칭의 사용에 있어서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인칭 융화 (merge)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화자는 1, 2인칭 청자를 가리킬 때 1, 2인칭 대명사 대신에 3인칭 보통명사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칭 위계를 다시 언급하면, 1, 2인칭은 3인칭 보다 유생성 위계가 높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유생성 위계가 높은 1, 2인칭 대명사보다 3인칭 보통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료 1에서 자료 3까지의 전체자료를 조사한 결과였다.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병렬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표 12 인칭별 병렬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한국어	영어(번역문)
1, 2인칭	14.2%(116)	12.2%(103)	52.1%(440)	55.8%(550)
3인칭	85.8%(699)	87.8%(741)	47.9%(404)	44.2%(436)
합계	100%(815)	100%(844)	100%(844)	100%(986)

먼저 영한 병렬언어자료에서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한국어에 비해 1, 2인칭의 지시표현이 2% 더 높은 반면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3인칭 지시표현의 비율이 2%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어와 그 영어번역문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표11>에서 살펴본 바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인칭 위계에 따라 영어에서는 한국어에 비해 3인칭 보다 1, 2인칭의 지시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영어에 비해 1, 2인칭 지시표현보다 3인칭 지시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므로 영어는 유생성이 높게 나타나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유생성이 낮게 나타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유생성은 유생과 무생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영역으로 개별 언어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생성이 영어와 한국어에서 지시 표현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개별성 위계와 인칭 위계를 자료 분석의 근거로 하여 두 언어에 사용된 지시표현의 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생략,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와 1, 2, 3인칭에서 사용된 지시표현의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조사한 결과는 인칭위계와 개별성 위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먼저, 개별성 위계는 한 개체가 얼마나 한정적이고 식별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시표현의 위계이다. 즉,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 순으로 유생성의 정도를 말해주는데, 이 중에서 대명사는 유생성이 가장 높고, 고유명사, 보통명사 순으로 유생성이 낮아진다. 세 개의 인칭을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고유명사, 보통명사 순으로 사용되어 유생성이 높은 지시표현일수록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뿐만 아니라 유생성이 낮은 보통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고유명사, 대명사 순으로 사용되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일어나거나, 유생성이 낮은 지시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인칭 위계는 발화역할에 따라 인간의 범주를 1, 2, 3인칭으로 구분한 위계이다. 감정이입의 정도에 따라 1, 2인칭이 높고 3인칭이 낮게 위치한다.

조사결과 영어에서는 한국어에 비해 1, 2인칭 지시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에 나타난 반면, 한국어에서는 영어에 비해 3인칭 지시표현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가 한국어보다 유생성이 높은 지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이 더 높은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두 언어가 유생성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여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하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나고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이다.



참고 문헌

- 김소영. 2002 『한영 지시 표현의 비교 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6.
- Anderson, S. R. and E. L. Keenan. 1985. Deixi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ker, M. 1995.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 Brown, P. and S. Levinson.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N.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ly, W. A. and R. D. Van Valin, Jr. 1985.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Clause.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wler, R. 1977. *Linguistics and the Novel*. London: Routledge.
-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ch, G.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ocke, J. 1694. Of Identity and Diversity. In J. Locke,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Reprinted in J. Perry (ed.) (1975), *Personal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Vol. 1&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ühlhäusler, P. and R. Harre. 1990. *Pronouns and People*. Oxford: Basil Blackwell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